

# 2000년 이후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 관계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에서 벗어나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업률은 2021년 1분기 중 4.3%까지 상승하였으나, 2021년 2분기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하여 2022년 1분기 중 3.0%까지 하락하였음. 실업률이 상승하긴 했지만, 경제활동인구 내에 있는 실업자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고용변동보다 실업률 변동폭이 적었음.
  - 실업의 범위를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내에 있는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까지 확장한 고용보조지표3은 2020년에 전년보다 1.8%p 상승했고, 2021년 1분기 중 14.5%로 높아졌음. 고용보조지표3도 2021년 2분기부터 빠른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2년 1분기 중 11.4%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표 1〉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실업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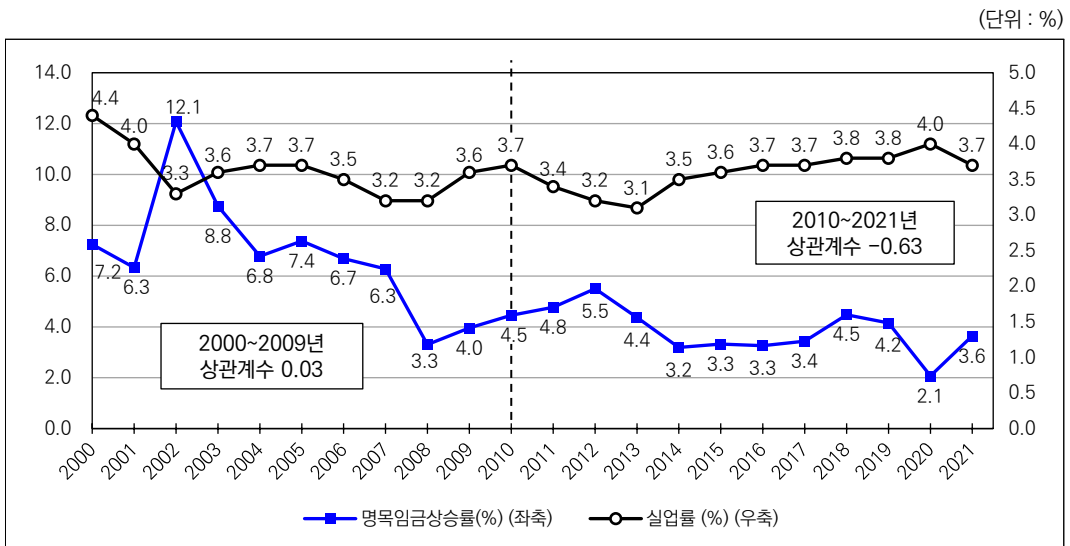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간	연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2.2	-0.7	4.1	2.2	6.2	4.0	4.2	3.0
실업률	3.8	4.0	3.7	4.3	3.7	3.1	3.4	3.0
고용보조지표3	11.8	13.6	13.3	14.5	13.2	12.6	12.6	11.4
명목임금상승률	4.2	2.1	3.6	3.0	3.9	3.8	3.9	4.1

- 주: 1) 실질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2021년 및 2022년은 잠정치)  
 2) 실업률 분기자료는 통계청 계절조정자료. 고용보조지표3 분기자료는 X-12-ARIMA를 이용하여 구성지표들을 계절조정 후 산출하였음.  
 3) 명목임금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정액급여 기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며, 2022년 1분기는 1~2월 평균임.  
 4) 고용보조지표3 = [(실업자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 잠재취업가능자) / (경제활동인구 + 잠재구직자 + 잠재취업가능자)] \* 100임.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반면,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잠재구직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을 원하고 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 잠재취업가능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명목임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상황 악화로 2019년 4.2%에서 2020년 2.1%까지 상승률이 둔화되었음. 2021년 들어 명목임금은 전년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어 2분기 중 3.9% 상승하였고, 2022년 1분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 관계는 필립스 곡선으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 즉 두 변수 간 음(-)의 관계로 알려져 있음.
  - 다만,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 관계는 분석 자료, 시기, 방법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며, 두 변수 간 음의 관계가 약화되었다는 분석 결과도 다수 존재
- 최근 자료들에서는 고용시장의 양적 개선(실업률 하락)과 명목임금 상승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보다 긴 시계에서 우리나라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함.
  - [그림 1]을 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실업률은 연평균 3.6%였으며 명목임금은 5.2% 상승하였음.
  - 명목임금상승률은 추세적으로 완만해지고 있으며, 실업률에 비해 변동폭이 큼(기간 중 실업률 변동폭 1.3%p, 명목임금상승률 변동폭 10.0%p).
  - 금융위기 이전(2000~2009년)과 이후(2010~2021년)로 나누어 보면, 금융위기 전후 실업률은 모두 연평균 3.6%로 비슷한 수준임. 한편 명목임금은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6.9%, 금융위기 이후에는 3.9% 상승하였음.

[그림 1] 실업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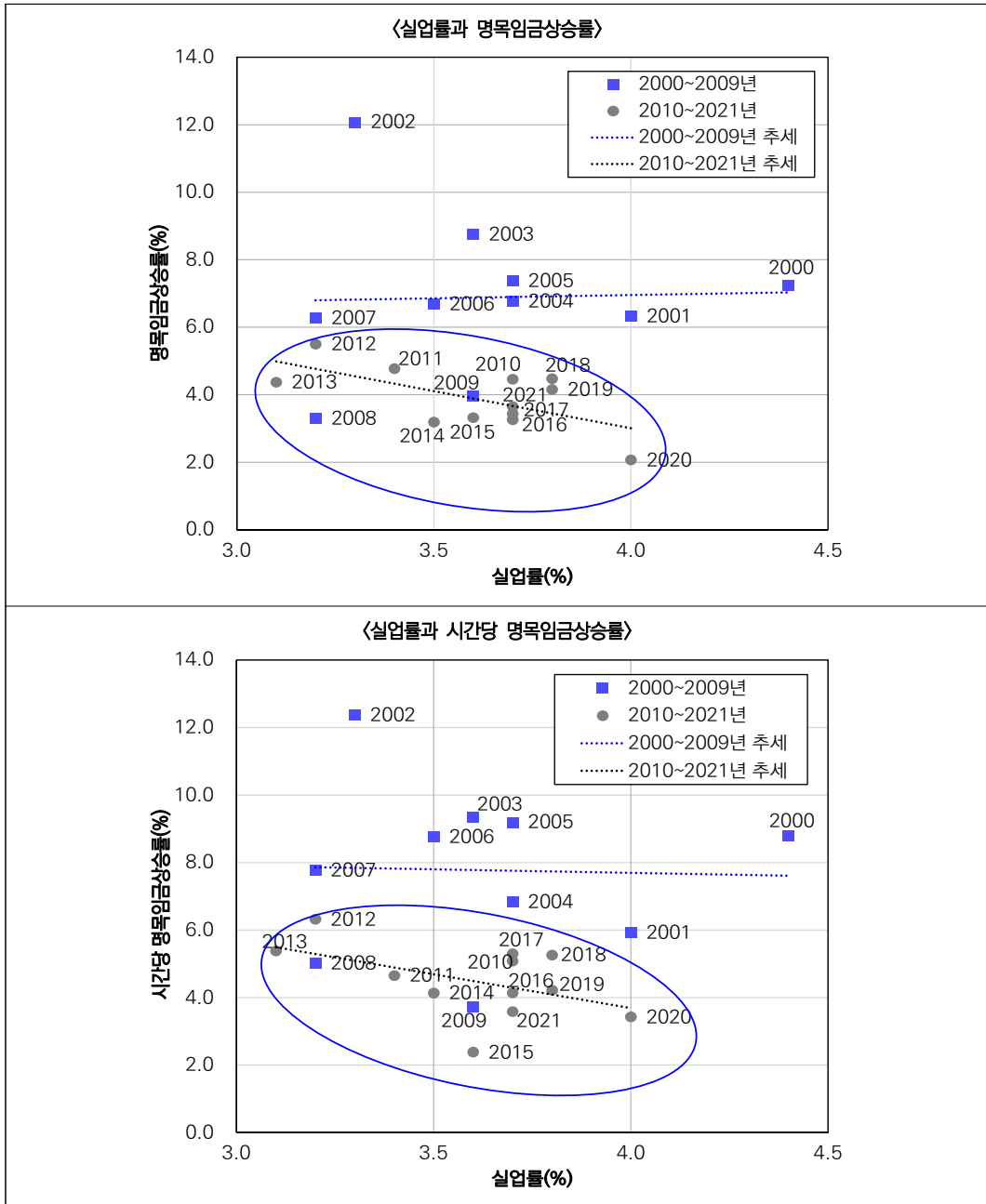
주: 명목임금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정액급여 기준 전년대비 상승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이전 0.03, 금융위기 이후는 -0.63으로,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
-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 2]를 보면, 2010년 이후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은 음(-)의 관계를 가짐.
  -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대해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 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는 금융위기 이후 관측치들의 기울기보다 매우 완만한 형태임.
  - 금융위기 이전에는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 관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나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두 변수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남. 즉 실업률이 높을 때 명목임금상승률이 낮고, 실업률이 낮을 때 명목임금상승률이 높음 .
  - 시간당 명목임금(=상용 정액급여/상용 실근로시간) 상승률과 실업률도 금융위기 이후로 음의 관계를 가짐.
  - 2000년 이후 기간에 대해 실업률과 상용정액급여 상승률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간단한 형태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 음의 관계는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이 금융위기 이후 기간 내내 안정적인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근 들어 두 변수 간 음의 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보임.
  -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의 궤적을 분기별로 나타내어 보면(그림 3), 두 변수는 시기에 따라 음의 관계(2010~2014년)와 양의 관계(2015~2019년)를 달리 가짐. 즉,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두 변수 간 음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아님.
  -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 음의 관계가 다시 나타남. 고용보조지표 3과 명목임금상승률도 2020년 1분기 이후로는 음의 관계가 성립함.
  - 최근 나타난 고용과 임금 간 관계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으로 가는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된 후 정교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KL**

[그림 2]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 관계(연간 자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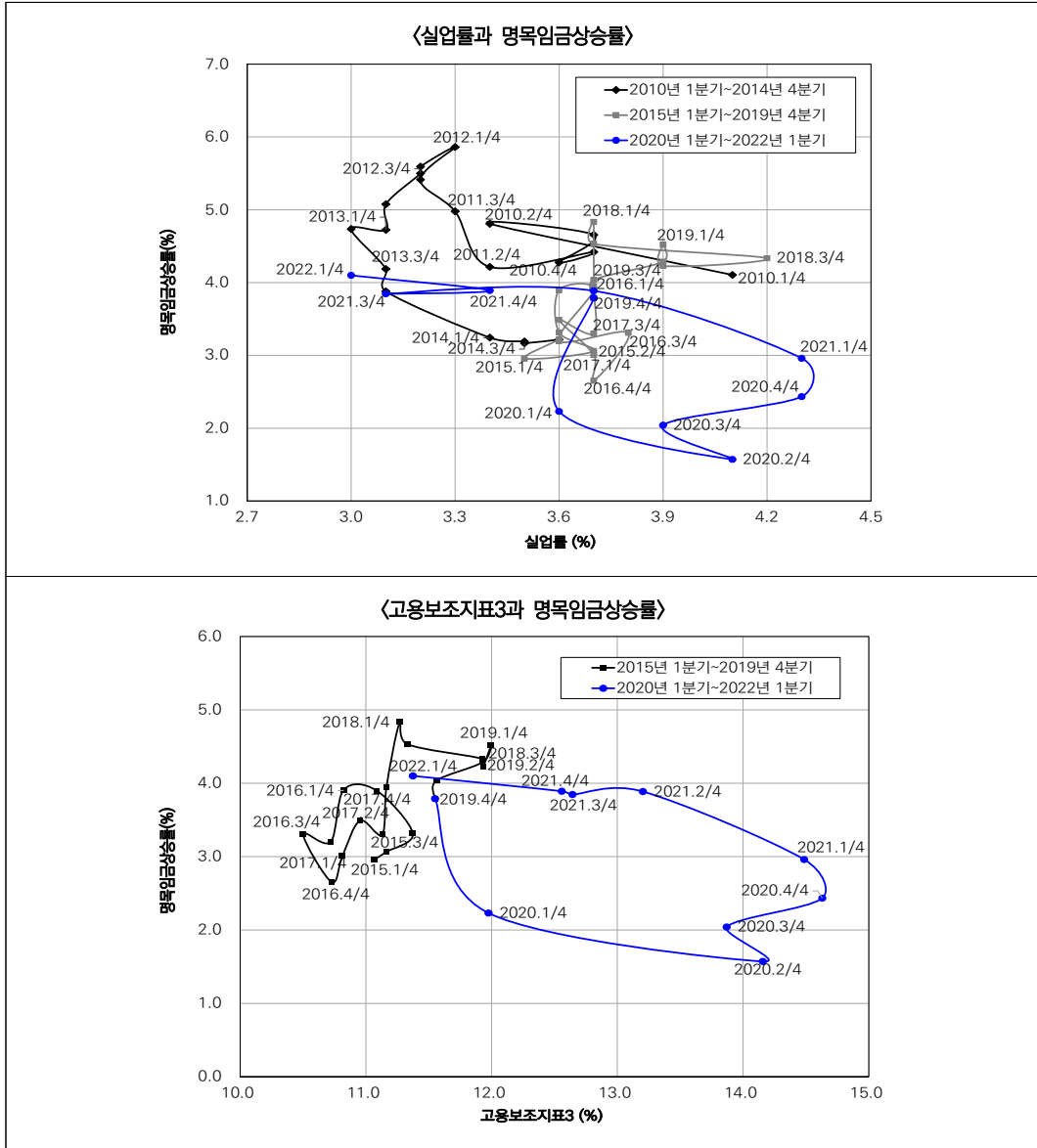
주 : 1) 명목임금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정액급여 기준 전년대비 상승률임.

2) 시간당 명목임금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정액급여를 상용 소정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의 전년대비 상승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그림 3]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간 관계(분기 자료)

(단위 : %)



주 : 1)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 그림(위)은 2010년 1분기~2022년 1분기까지, 고용보조지표3과 명목임금상승률 그림(아래)은 2015년 1분기~2022년 1분기까지임.  
 2) 명목임금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정액급여 기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며, 2022년 1분기는 1~2월 평균임,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3은 계절조정자료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